

정성본 교수의 글을 읽고

이 덕 진*

1. 들어가는 말

한국의 불교학계에서 性本스님은 어느 정도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선불교에 관한 한 스님의 연구 업적은 놀라운 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새로운 논문을 적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할 때마다 스님께서 제가 천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미 괄목할만한 연구를 해 놓으신 것을 보고 감탄을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 뿐 아니라 스님의 기념비적인 저작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는 우리나라에서 선불교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옆에 두고 열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본스님의 논문에 대해서 말석에서나마 이렇게 논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 같은 末流의 학자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평 의뢰가 왔을 때, 평자는 약간은 두렵고 약간은 즐거운 마음으로 승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좋은 논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기까지 하였습니다. 학자로서 좋은 논문을 읽는다는 것, 그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저는, 스님의 논문을, 감탄하면서, 며칠간에 걸쳐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의관을 정제하고, 이

평문을 적습니다.

2. 논문의 형식과 관련하여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스님은 후학들에게 하나의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의 글쓰기를 후학들이 알게 모르게 典範으로 삼고 있습니다. 스님의 책임이 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 제가 보기에, 형식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어 보이는 부분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용문, 주석 등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이 많이 보입니다.

(1) 어떤 경우에는 인용문에 문헌 자료가 같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없습니다.

(2) 어떤 경우에는 인용문에 한문 원전이 附記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없습니다.

(3) 어떤 경우에는 문헌 자료에 대해서 각주처리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본문 중간 중간에 무질서하게 들어 있습니다.

2) 非文이 조금 보입니다.

논문이 그 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뛰어 넘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형식에 있어서는 엄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논문의 형식을

약간 무시한 독창적인 글쓰기를 하고 계신데, 그 결과 논문이 전체적으로 대단히 장황하고 산만해 보입니다. 단편논문의 특징이 하나의 독창적인 논지를 주장함에 있다고 본다면 '장황과 산만'은 연구자의 논지를 파악하는 데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제목과 내용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1) 제목은 「선불교의 정토사상」인데, 실제로 읽어 보면 대승불교 전체의 정토사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책을 한 권 읽는 기분이 듭니다.

(2) 단편 논문의 특징은 '압축과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전체 248매인데, 이렇게 많아야 할 이유를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핵심 부분인 뒤에 있는 '선불교의 정토관'에 관한 부분만 해도 130여 매가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100여 매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3) 논문 제목이 너무 막연합니다. 보다 구체적이었으면 합니다. '선불교의 정토사상'에 대하여, 스님께서는 혜능의 입장을 주로 해서 논지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목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혜능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혜능의 입장이 선불교의 모든 정토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논문의 내용에 관해서는 스님의 견해에 거의 동감합니다. 그래서 한두가지 결가지를 붙이는 것으로 논평자의 책무를 다할까 합니다.

(1) 스님께서는 고려의 보조국사 지눌이 『勸修定慧結社文』에서 唯心淨土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아직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염불요문』이 지눌의 저작이라는 문제 등도 포함하여, 학자들간에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 고익진의 경우, 그는 『염불요문』이 지눌의 저작이 아니라는 것을 문헌학적으로 논증함을 통해서, 지눌의 정토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개진합니다. 즉 『염불요문』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지눌의 저작으로 假託되었으며, 그 이유는 지눌이 정토사상을 배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정토신앙이 왕성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보조선을 부흥·계승하는 과정에서 정토신앙을 수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눌의 정토에 대한 입장을 『권수정혜결사문』만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눌은 말법의식에 입각한 정토사상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¹⁾ 권기종 역시 『염불요문』이 지눌의 저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동시에 그는 지눌이 정토교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오로지 定慧의 선수행 만이 正因이고 了義이며, 정토업은 三乘勸學의 방편이고 不了義라고 지적하였다고 주장합니다.²⁾ 그러나 이종익은 『염불요문』을 지눌의 親著로 봅니다. 그 뿐 아니라 圓頓信解門, 惺寂等持門, 徑截門의 三種門에 念佛三昧門과 無心合道門의 二門을 첨가하여 보조선을 五門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염불요문』에 나오는 十種念佛 중 無心念佛과 眞如念佛

1 高翊晉, 「普照禪脈의 淨土思想 受容」, 『佛敎學報』 23집, 불교문화연구원, 1986, pp.229~243

2 樸奇宗, 「高麗時代 禪師의 淨土觀」, 『太古普愚國師論叢』, 대륜불교문화연구원, 1997, pp.377~406

을 禪淨一致의 念佛禪으로 보고, 염불삼매문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³⁾ 이에 비해서 김호성은 「염불요문」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는 「勸修定慧結社文」만을 중심으로 해서 지눌의 정토관을 추적하며, 그는 결론적으로 지눌이 정토사상을 수용했다는 것, 그리고 고익진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종익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자신만의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우는 것이 됩니다.⁴⁾ 상기한 여러 주장들보다 한보광은 지눌의 정토관에 대해서 좀 더 단정적입니다. 그는 지눌의 정토관은 정혜쌍수를 기본으로 한 唯心淨土觀이며, 그의 선은 禪淨雙修를 바탕으로 한 念佛禪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에 의하면 지눌은 정토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눌이 비판한 것은 잘못된 염불행자들의 신앙관과 指方立相의인 稱名念佛일 뿐이라는 것입니다.⁵⁾

결국 지눌의 정토관에 대한 입장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익진과 권기종은 지눌의 정토사상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토를 배제한 채 지눌의 사유체계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에 반해서 김호성은 지눌이 정토사상을 전적으로 배격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최하근기를 위해서 정토사상을 수용했으며, 여기에서 선사일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지눌의 면모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종익은 지눌을 통불교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즉 지눌이 염불삼매문을 설립하고 염불선을 그의 사유체계 속에서 두었다는 것입니다. 한보광은 지눌의 정토사상 수용에

3 李鍾益, 「韓國佛敎의 研究」, 日本國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55, pp. 98~112, pp.259~273

4 金浩星, 「普照의 淨土受容에 對한 再考察」, 「韓國哲學宗教思想史」, 여산유병덕박사 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90, pp.441~461

5 韓普光, 「信仰結社研究」, 如來藏, 2000, pp.349~390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견해를 개진합니다. 그는 지눌의 선을 禪淨雙修를 바탕으로 한 念佛禪이라고 봅니다.

스님의 지눌의 유심정도에 대한 견해는 결국 제가 보기에는 고의진, 권기종 교수님 등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보광 스님, 이종익 교수님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2) 스님께서는 慧能 등을 예로 들어서 선종에서는 淨土의 가르침을 일종의 방편설로만 여긴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정토종은 西方淨土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염불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往生極樂淨土에 있다고 여깁니다. 이에 반해서 선종에서 수용된 정토는 내생이 아닌 현세에 도달한다는 것이고, 타력에 의한 성취가 아니라 자력에 의한 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정도 사상은 정토의 개념을 선에서 수용한 것으로, 엄격히 말하면 禪을 주로 하고 淨土가 從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永明延壽(904~975)는 禪淨一致를 주장하면서, 어떤 면으로는 禪보다는 念佛을 더 중시합니다. 이후 中峰明本(1263~1323)과 天如惟則(생물미상, 원대스님)에 이르면, 정토가 선의 결가지가 아니라 중심 된 사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선과 정토는 후대로 갈수록 同等한 입장에서 融合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선불교의 정토사상'을 논구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勸修定慧結社文』에 禪淨雙修를 주장하는 延壽의 『萬善同歸集』, 『唯心訣』 등의 저술이 18회나 인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까요?²⁶⁾

(3) 스님께서는 결론 부분에서, “따라서 정토종에서 주장하는 염불수행과 阿彌陀佛을 친견하는 주장이나,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주장은 현실적인 종교인 불교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자기 본성을 깨닫는 자각종교의 차원에서 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唯心淨土, 自性彌陀」는 불교 사상을 정통적으로 계승한 정법의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선불교에서 佛祖의 正法眼藏과 佛慧命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의미는 이러한 정법의 상승을 자임하는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고 하십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정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견해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나가는 말

21세기의 화두는 ‘實用’과 ‘快樂’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거나 돈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은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불교학은 그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선불교가 21세기의 대안이라고들 모순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선불교는 우리에게는 일종의 오아시스입니다. 결국 이상은 華麗하지만 현실은 늘 檻樓합니다. 그리고 그 남루함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공부하고 발표하며 또 논평합니다. 그것이 억울해서 평자는 늘 좋은 글에 대해 渴症을 느낍니다. 그 결과 이렇게 무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6 宗眞, 「普照知訥의 禪思想에 대한 再照明」, 『韓國佛教文化思想史』 卷上, 가산문고, 1992, pp.925~927

지금까지 논구된 모든 것들이 불교 무차대회의 전통 안에서 용서
되기 바랍니다.

이 덕 진 두손 모음